

OECD 출장결과 보고

I. 출장개요

□ 회의 일정 및 장소

- 제47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: 10. 13(월)~14(화), 파리
- 제60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: '08. 10. 16(목)~17(금), 파리

□ 출장자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 : '08. 10. 12(일) - 18(토)
- 그외 농림부 3인, 경상대 안병일, 한양여대 신성균 교수 등이 부분적으로 참석

□ 주요내용

- 제47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(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)
 - 농업에서 계약의 역할, 농식품 가치창출, 물보조금의 PSE와 GSSE 범주, 최적 위험관리정책, '09 M&E 보고서 제안서 등 11개 보고서 검토
- 제60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(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)
 - 사회적 관심과 교역정책, 농식품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, 구제역이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영향, 농업교역마진 등 5개 보고서 검토

II. 제47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

< 의 제 >

회의 안건	문서번호
01. 2009년 의장단 선출	
02. 의제 채택 [승인]	TAD/CA/APM/WP/A(2008)
03. 2차 회의 결과 요약 [승인]	TAD/CA/APM/WP/M(2008)2
04. 농업에서 계약의 역할, 활용, 동기화 [토의]	TAD/CA/APM/WP(2008)14
05. 농식품 부문에서의 가치 창출(value creation) [토의] - 농식품부문 가치 창출의 새로운 방안과 전략(최종보고서)	TAD/CA/APM/WP(2008)15
06. 식습, 건강, 영양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 [토의]	TAD/CA/APM/WP(2008)10/REV1
07. 물 보조금의 PSE와 GSSE 범주 및 측정 [토의]	TAD/CA/APM/WP(2008)16
08. 6차 PSE 전문가회의 결과 및 권고 i) 결과 요약 [정보제공] ii) 권고 사항 [결정] iii) 다음 단계 [정보제공]	TAD/CA/APM/WP(2007)17 TAD/CA/APM/WP(2007)18 TAD/CA/APM/WP(2007)19
09. PSE 측정의 범위, 일관성, 방법 [정보제공]	TAD/CA/APM/WP(2008)20
10. M&E 보고서 i) 2009 M&E 보고서 제안서 [결정] ii) 신흥경제국가의 2009 M&E 보고서 준비 [정보제공]	TAD/CA/APM/WP(2008)21
11. 최적위험관리 정책 i) 전체적 접근들 [공개] ii) 위험노출의 평가: 문헌조사 [정보제공] iii) 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 [토의]	TAD/CA/APM/WP(2008)22 TAD/CA/APM/WP(2008)23 TAD/CA/APM/WP(2008)24
12. 농촌개발 i) 농촌지역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 부문의 역할 [공개] ii) 농촌개발에 대한 농업정책의 영향평가 기법 보고서의 진도보고 [정보제공]	TAD/CA/APM/WP(2008)25 TAD/CA/APM/WP(2008)26
13. 바이오 에너지 접근에 기반한 정책과 시장 [정보제공]	당일배포
14. 분배 분석을 담당할 네트워크 : 9월회의 결과보고 및 세미나 제안 [정보제공 및 결정]	구두보고

① 농업에서 계약의 역할, 활용, 동기화 : 토의

□ 사무국은 농식품 부문의 계약 활성화 유인 및 결과, 계약 실태에 대한 서베이 결과 등을 제시하였고, 회원국은 이와 관련된 정책이슈 논의를 논의하였음

□ 주요회원국 발언

○ 미국 : 낮은 회수율 및 기술변화의 영향에 대한 과장 등을 지적

○ EC : 결론에서 정부개입의 긍정적·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

○ 캐나다: 결론부분이 production contract, marketing contract 모두에 유효한 것은 아닌데, 너무 일반화 하고 있다고 지적

□ 대표단

○ 향후 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1주일 내에 사무국에 제출기로 함

- 정부개입의 사례(계약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, 분쟁해결의 노하우 등)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가 포함되길 희망

□ 논의결과

○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, 다음 보고서를 지켜보기로 함.

○ 회원국은 1주일 내 서면의견을 제출기로 함

② 농식품 부문에서의 가치 창출(value creation) : 토의

- 동 보고서는 농식품 부문의 신규 가치 창출을 위해서 ①전통적인 농식품 생산·유통의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 방법 ②타 산업 기술혁신을 활용한 가치창출 방법을 분석하고, 관련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함

- 주요회원국 발언
 - 캐나다: 분석내용이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기술하도록 요청,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캐나다 역시 선두국가임을 강조
 - 프랑스
 - 농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많음 (가령, 가치창출을 위한 innovation 비용이 매우 높아 해당 식품의 가격상승과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음)
 - 소비자의 식품 구매력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 - 미국, 뉴질랜드 : 농식품의 가치창출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 및 대안적인 유통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 - 일본: 가치창출을 위한 일본의 R&D 사례 소개는 시사하는 바가 큼

- 대표단
 - 최근 식품분야를 포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한국에게 식품분야의 가치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과 사례가 소개된 본 보고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함.

- 논의결과
 -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, 다음 보고서를 지켜보기로 함

③ 식습, 건강, 영양에 관한 정책 이니셔티브 : 토의

□ 동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비만율과 만성질병 발병률의 증가로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각국의 식습관, 영양, 건강과 관련된 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□ 주요회원국 발언

- 노르웨이 : 영양 및 건강 관련 최근연구가 적절하게 반영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음.
- 독일 : 독일의 농림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매우 유용할 것임.
- 호주 : 용어, 문맥을 정리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히 해주길 희망
- 미국 : 미국 사례로 2~3개 더 추가될 것이 있음. 서면의견으로 전달할 것임
- 네덜란드 : OECD의 역할 및 본 보고서가 각국에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를 희망
- 영국, 스웨덴, 덴마크, 헝가리 : 자국 관련 내용 중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

□ 논의결과

-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음
- 이달 말까지 각국은 서면의견을 제출기로 함

4 물 보조금의 PSE와 GSSE 범주 및 측정 : 토의

□ 농업용수에 대한 이전(지원) 성격에 따라 PSE와 GSSE로 구분하는 문제는 EU의 2005/2006 자체 프로젝트에 의해 처음 이슈화되었음

- 본 보고서는 이제까지의 검토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합의한 분류기준을 정리하고, 합의된 분류 기준 하에서 여러 형태의 물 관련 보조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분류 되는지 보여줌

□ 주요회원국 발언

○ 독일 : 물 관련 이전은 농업용과 비농업용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. 농업용 구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희망

○ 프랑스

- 물 관련 이전에서 기회비용으로 서술한 내용에는 외부성에 대한 고려가 없음
- On-farm, off-farm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함 (가령, 2명 이상의 농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혜택 받는 경우)
-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물관련 보조 정책도 있는데, 이들 정책 관련 자료수집은 매우 어려움.

○ 스페인 : GSSE로 분류되는 이전에는 물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전이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를 희망

○ 일본 : on-farm, off-farm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리시설을 누가 소유하는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희망

□ 대표단

○ 물 인프라 관련 유지 보수, 운영 및 관리비용은 GSSE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명시하기를 희망

※ 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물 관련 보조액 현황은 200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.
(TDA/CA/APM/WP(2007)28 보고서의 page 47-52)

- PSE: 농촌공사의 관개관련 사업 예산으로 760억
- GSSE: 농촌공사의 관개시설유지 관련 지원예산 760억

* 우리나라가 보고한 관개 관련 보조금 액수 중 PSE로 분류하는 760억과 GSSE로 분류하는 760억은 단순히 농촌공사의 관개관련 총예산을 1/2로 각각 분배한 것임

□ 논의결과

○ 사무국은 농민에 대한 집단적 보조는 PSE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답변

- PSE 전문가회의에서 논의결과, 물 관련 이전의 측정기준은 price -gap approach가 아니라 building block approach 임을 상기시킴

○ 사무국이 제공할 회원국의 물 관련 보조금 (정책)에 관한 데이터에 대하여, 각국은 12월 말까지 검토해 주기로 함

㉟ 6차 PSE 전문가회의 결과 및 권고: 정보제공 및 결정

가. 전문가회의 내용

<6차 PSE 전문가회의 결과보고>

□ 새로운 PSE에서의 정책분류(option 1, option 2)>

- 정책분류 C와 F에 관련하여, 다음 두 가지 option 중 option 1이 채택되었으나, option 2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 - option 1: 새로운 하위카테고리 및 꼬리표를 만드는 것.
 - option 2: 카테고리 F의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질문을 의사결정나무에 도입하는 것.

□ 카테고리 E의 품목특정도지표

- 품목특정도에 관련하여 다음을 PSE표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기로 함.
 - 품목예외가 있는 (또는 없는) 가변율
 - 품목예외가 있는 (또는 없는) 고정율

□ 생산유연성지표

- 사무국이 제안한 지표(information entropy를 이용한 지표)는 전문가들이 너무 복잡하고 개념적 기술적문제가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았고, 다른 사무국이 제안한 지표들로 추천되지 않았음.

<6차 PSE 전문가회의 권고사항>

- PSE표의 카테고리 E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함.

With variable payment rates
With commodity exceptions
With fixed payment rates
With commodity exceptions

- 이러한 PSE표상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2007년 M&E 보고서의 OTP, ACT, GCT, SCT를 나타내는 그림에 추가하여 OTP를 두 개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.

<전문가회의 다음 단계>

- 사무국은 생산유연성지표에 2008년 10월 APM에 독립된 기술적진행보고서(working paper)와 새로운 PSE 하에서의 보조(이전)의 분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

나. 주요 회원국 발언

<6차 회의 권고사항>

- 미국, EC, 프랑스, 독일
 - 그림 2(OPT1/OPT2 구분해서 제시)를 추가하는 실익을 모르겠음, “품목특정적” 기준이 매우 모호함.
 - 품목특정적 보조 관련 지표를 보면, SCT를 보면 됨
 - 별도의 그림 보다 ACT 등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하는 게 나음
- 캐나다
 - OPT1/OPT2 구분 기준은 “품목 특정성”이 아니라 “품목 집행기준”이라고 항변
 - [room document]를 통해 카테고리 E는 PSE에서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조이므로 성격별로 상세히 분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임
- 사무국
 - figure 2는 논의가 유의미한 나라에만 제공될 것임, OPT1/OPT2 구분 문제는 내년도 APM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임

<다음단계>

- EC, 독일, 덴마크
 - 생산유연성지표(production flexibility index)는 이미 전문가회의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채택 안하기로 회원국 의견을 모은 상태임에도 다시 AMP에서 공개여부를 논하겠다는 사무국의 계획은 동의할 수 없음.
- 일본: 보조의 분류 문제에서 환경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함.
- 프랑스, 아일랜드

- 매우 민감한 이슈이고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.
- 학문적인 논의수준이라면 논의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, 회원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는 영향력이 있는 보고서 생산을 위한 AP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함.

○ 사목국

- 생산유연성지표를 공개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피력하는 정도로 후퇴
- 한편,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논의한 production flexibility index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그 학문적인 가치를 보더라도 너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.

⑥ PSE 측정의 범위, 일관성, 방법 : 정보제공

- 본 보고서는 축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지지·초과사료비용 측정·신용양여(Credicit Concession)의 PSE 반영에 대해 각각 측정방법, 사용된 데이터 및 측정방법상의 일관성 문제 등 현재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전달함

- 주요회원국 발언
 - 스페인, 체코슬로바키아
 - 신용양여는 이미 PSE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음.
 -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(예를 들어, 이자율 경감과 동시에 상환기관 연장을 띤 신용양여를 사무국이 제안한 것과 같은 여러 카테고리로 과연 분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듦.
 - EC
 - 축산물 분야 MPS 재검토 문제는 EC가 부분적으로 연구자금을 지원해서 시작된 과제라는 점을 강조, 특히 초과사료비용을 "0"로 측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함.
 - 독일
 - 축산물 MPS와 관련하여, 가격차이는 다양한 요인(시장구조, value chain의 차이 등)으로부터 기인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함.
 - 일본
 - 일본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이용하여 참조가격을 계산하기 시작한 이래 특별한 정책변화나 시장제한 조치를 단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참조가격 계산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.
 - 노르웨이
 - 초과사료비용 계산의 대상은 반드시 국내생산 사료작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

-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PSE의 정의 및 방법상 국내생산 사료작물만을 대상으로 초과사료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
 - 기타 여러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제안은 앞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계획

7] 2009년 M&E 보고서 : 결정

- 사무국은 내년도 M&E 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구함
 - 1장은 2008, 2009년 농업정책의 주요 변화와 신규 계획 등을 다루며,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의 수준, 구성, 변화 차원에서 어떤 발전에 있었는지 평가함.
 - 2장은 OECD 국가 섹션 포함하는데 2007년 포맷을 따를 것인데, EU 27개국은 하나의 통합 보고서로 공통 정책 발전을 검토
 - 3장을 위해 제안된 특별 이슈(special issues) 는 농업 환경 조치와, 효과적인 농업 환경 정책을 위한 지침의 실태 조사임.
 - Text boxes에는 미국 농업법, EU Health Check 결과에 관한 보고서 등
- 주요회원국 발언
 - EC, 독일
 - EU chapter를 별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물음
 - 스페인, 노르웨이
 - 환경관련 chapter에서 PSE와 관련되는 것만을 기술할 것과 노르웨이의 기후변화 정책도 기술해 줄 것을 요청
 - 덴마크, 스웨덴, 캐나다
 - EU chapter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사무국의 제안 및 M&E 목차에 동의

□ 논의결과 : 목차 결정

- 사무국은 EU 각 나라는 공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별도의 chapter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EU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상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.
- 회원국은 사무국의 M&E 보고서 목차를 승인, 관련 정보를 2009년 2월 중반까지 제출키로 함

※ 2008년 Emerging Economies Monitoring & Evaluating

- 사무국은 14일 회의를 시작하면서, EC의 재정보고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 비회원국 6개국(인도·중국·브라질·러시아 등)에 대한 농정평가 보고서에 대한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였음
 -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음, 11.20-21 기간 농업글로벌포럼에서 자료공개 및 토의하며, 11.28까지 서면의견을 받고, 12.19 즈음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
- 미국은 러시아에, 스페인은 인도의 보고서에 관심을 표명하였음

⑧ 최적위험관리 정책 : 공개 및 토론

- 사무국은 최적위험관리 프로젝트의 향후계획을 언급하며, 3건의 보고서(통합론적 개념틀, 선행연구 결과, 정책 리뷰)개요를 프리젠테이션 하였음
 - 통합론적 개념틀에 관한 보고서를 금회에 공개하고, 이에 기반한 사례연구가 2009.2월 APM에서 선을 보이고, 2010년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.

(8.1) 통합론적 개념틀

□ 회원국 발언

- 영국, 일본
 - 통합론적 접근에는 찬성이지만, 구성의 오류(fallacy of composition) 및 위험회피계수의 과장 등의 문제 있음
 - 요약본 제공이 필요함
- 독일

- 농업과 비농업 위험 간의 차이가 명시되어야 하고 제2장과 제3장 의 일관성이 부족함, 미시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함.

○ 프랑스

- 생산량과 가격 간 역관계 그래프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함
- 내생적/외생적 위험 간 구분되어 분석되어야 하고, 농업 생산자의 위험에 대한 기대 요소를 간과하였음
- 결론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움.

○ 기타

- 스페인, 뉴질랜드, 호주, 캐나다, 멕시코 : 통합론적 개념틀 및 동 보고서의 공개에 찬성
-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호주, 뉴질랜드 : 사례에 포함되길 희망

○ 한국

- 소농이 직면하는 위험이 다루어지질 못한 것이 아쉬움을 표명하며, 향후 연구에 반영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

□ 논의결과 : 공개 불승인

○ 사무국은 금번 보고서는 통합론적 접근으로서 다양한 이슈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

- 향후 연구에서 미시적 접근 및 사례연구를 할 것임,
- 개개인의 위험과 집합적 위험 간의 분석 및 정책적 함의가 다른 것은 보고서에서 이미 언급되었다고 해명

○ 사무국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2009년 2월 APM에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개 승인을 요청키로 함, 요약본도 제공할 예정

(8.2) 선행연구 결과

□ 회원국 발언

- 독일 :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영향이 단일변수로 고려되지 않았음, EU에서는 GMO의 이전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를 다루지 못함.
- 네델란드 : financing, taxation이 농가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도 필요함.
- 프랑스 : 대부분 잘 검토되었지만, 미국 사례가 다수여서 '선정의 오류'를 범함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농가단위 자료를 찾기 매우 힘들었고 공급보다 수요측 위험분석 자료가 많았음을 표명하며,
 - GMO의 이전으로 인한 위험증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음을 알려주길 희망하였음

(8.3) 정책 리뷰

□ 회원국 발언

- 독일 : 위험관리 정책이 위험감소를 가져오는 작동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음, 농업보조와 타산업보조 간의 구별이 쉽지 않음
- 캐나다 : WTO 관련 접근 부분에서 각 박스별(amber, green 등) 정의가 삽입되길 희망
- 프랑스 : 보험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, 표6 정정 요청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각국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2월 APM에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기로 함

⑨ 농촌지역개발

- 사무국은 '농촌지역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 부문의 역할 보고서'에 대한 공개 승인을 요청하고, '농촌개발에 대한 농업정책의 영향평가 기법 보고서'에 대해 진도보고를 하

였음

(9.1) 농가 및 농식품의 역할 : 공개승인 요청

□ 회원국 발언

○ EC

- 제목과 내용이 조화되지 못한 경향 있음, 농가 및 식품산업이 농촌개발에서 기여하는 바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음

○ 덴마크, 스웨덴, 호주

- 농촌 개념에 대한 정의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, 재검토되길 희망
-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GDP만이 아님

○ 핀란드, 멕시코 등

- 표1.1.에서 지역수준 2와 3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, 이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

○ 한국 : [표 1.1. OECD 회원국 지역구분(11페이지)]에 한국 관련 기술에 정정을 요청함

- 미국의 states와 일본의 regions에 해당하는 한국의 TL2 지역구분은 '도+광역시 (provinces + metropolitan cities)으로 16개(9+7)이며, TL3 지역구분에는 '시+군 (cities+counties)'으로 200여개 임

□ 논의결과 : 공개 불승인

○ 사무국은 애초의 취지가 농가 및 식품산업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 취지였는데, 이러한 자료가 회원국들에게 너무 부족하였음

- 농가소득의 다각화(diversification)은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의 보고서에서 다룰 예정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농촌지역의 통합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음

○ 각국 의견을 반영해 2009년 2월 APM에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겠음

- 표1.1.에 대한 정정 등 서면의견은 11월 중순까지 제출 바람.

(9.2) 농촌개발평가에 대한 진도 보고

- 본 논문의 목적은 OECD 국가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참고해서 농업정책이 농업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것임.
 - 2009-10 PWB의 종합리포트인 농업정책과 농촌커뮤니티 복지의 영향(Impacts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Rural Community Well-Being) 프로젝트의 일부임

-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었음

- 사무국은 2009. 5월 APM에서 통합보고서를 제출하고, 동년 10월에 농촌개발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림

10 바이오 에너지 접근에 기반한 정책과 시장 : 구두보고

- 사무국은 OECD 각료회의 결정으로 EU와 북미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금년 7월에 발간된 동 보고서의 내용 및 향후계획을 설명
 - 미국 및 유럽이 실행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 도움이 없다는 내용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담음
 - 2009년 5월 농업위원회에서도 일부를 논의할 예정이고, 제2단계 연구에서는 바이오연료 외 bioheat, biopower, biogas 등을 분석할 계획

□ 회원국 발언

○ 프랑스

- 금년 7월 보고서는 너무 빨리 발간되어 놀랐으며, 금년 5월 농업위원회에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반영되지도 않았음

○ 미국

- 다음 보고서는 보다 정교하게 작성되길 희망함
- 금년 7월 보고서에서는 지출 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고 권고사항에도 다소 불만 있음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금년 7월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향후 보고서에서는 회원국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.

11) 분배분석을 담당할 네트워크 : 9월회의 결과보고 및 세미나 제안

- 사무국은 2008. 9.29-30 개최된 표제회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함
 - 참가국이 12개로 여전히 제한적이며, 2009. 2월 APM에서 “농가수준 분배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힘.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제안함

□ 회원국 발언

- EC, 캐나다, 프랑스 : 모임 명칭의 변경 및 구체적 과제의 진행을 제안하였음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, 보다 구체적인 임무와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힘

※ 2008년 US Farm Bill에 대한 프리젠테이션

- 미국 대표는 금년에 통과된 수정된 농업법의 주요 사항을 발표

III. 제60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주요의제 및 대응방향

< 의 제 >

회의 안건	문서번호
1. 의장단 선출	
2. 의제 채택	TAD/TC/CA/WP/A(2008)2
3. 59차 회의 요약보고서 채택	TAD/TC/CA/WP/M(2008)1
4. DDA 협상 경과와 '09- '10 PWB 계획 [정보제공]	구두보고
5. 해상운송비용이 농업교역에 미치는 영향 [토의] * 관련 : TAD/TC/CA/WP(2008)1	TAD/TC/CA/WP(2008)2
6. 사회적 관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교역 및 교역정책에 갖는 함의 [공개]	TAD/TC/CA/WP(2007)2/REV1
7.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	
i) 비용-편익 분석틀 [토의]	TAD/TC/CA/WP(2008)3
ii) 비관세조치를 장려하는 교역과 제한하는 교역 분간하기 [토의]	TAD/TC/CA/WP(2008)4
8. 동물질병 발생과 방역조치가 농산물시장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 : 구체역 [토의] * 관련 : TAD/CA/APM/WP(2007)12/FINAL, TAD/TC/CA/WP(2007)4	TAD/TC/CA/WP(2008)5
9. 농업교역에서 확장된 마진 [토의]	TAD/TC/CA/WP(2008)6

① 해상운송비용이 농업교역에 미치는 영향

□ 동 보고서는 농산물 교역에서 해상운송 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·연구

□ 회원국 발언

○ 호주, 프랑스, 뉴질랜드, 독일, 캐나다, EC 등

- 동 보고서가 농산물과 수송비의 영향에 대해 잘 고려되었지만,
- i) 무역국가간의 총 GDP가 아닌 농산물 GDP로 구분하는 문제, ii) 유가변동, 수입국에 따른 항로 차이에 대한 비용 차이, 항구의 크기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문제 등을 고려치 못한 것을 지적하였음.

□ 논의결과 : 공개 불승인

○ 사무국은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고,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삽입하여 dataset을 최종 검토 후 2009년 5월 회의에 다시 공개 요청 할 예정

- 수출국은 농업 GDP를 고려하고, 수입국은 일반 GDP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.
-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, 최대한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임.
- 해상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어 상호 연계가 될 것으로 보여짐.

② 사회적 관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교역 및 교역정책에 갖는 함의

□ 2008년 5월 회의에 공개 목적으로 논의되었다가 다시 공개 승인을 요청, 농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 관심사항(societal concerns)을 밝혀 분류

- 농업과 무역 분야의 2009-10년 작업과, 2009년 말에 열리는 “사회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대응의 경제 및 무역시사점에 관한 워크숍”내용을 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임.

□ 회원국 발언

○ 미국, 멕시코, 독일, 프랑스, EC, 캐나다

- 문서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언급하며, 특히 WTO SPS와 TBT에 대한 설명 및 PPM에 대한 WTO의 법률적 설명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음.
- 민간과 정부의 관계(정부간섭 정도)에 대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.

○ 스위스, 네덜란드 등은 워크숍 이전에 완결하여 워크숍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자는 의견임, 반면 미국은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논의하자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함.

□ 논의결과 : 공개 불승인

○ 사무국은 2009년 11월에 워크숍을 예정이니, 5월까지 서면의견 제출을 요청

-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새롭게 기술하고, 워크숍에서 논의를 거쳐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, 공개절차는 문서로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국가에게 우선 확인 요청할 것임.
- WTO에 관한 법률적 문제는 WTO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

③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

(3.1) 비용편익분석 : 토의

□ 동 보고서는 비관세조치(NTM)와 연계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며, 이는 NTMs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모형화 시킴

- MAST(Multi-Agency Support Team)가 분류한 비관세조치 중에서 i)SPS 조치, ii)TBT 조치, iii)기타 기술조치에 대한 사회적 후생 및 무역 효과 평가가 주 목적임

□ 회원국 발언

- 미국, 호주, 일본 등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속성을 우려하는 소비자와 이에 무관한 소비자들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고, 소비자 valua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음.
- EC, 프랑스는 시장실패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며,캐나다는 향후 무역에 미치는 많은 영향에 대한 Case study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.
- 브라질은 개념틀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NTMs을 지지하는 것 같아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.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시장접근과 비용편익과의 연계 문제, 소비자의 분류 문제, 기본 전제의 선택 부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인정
 - 수시로 회원국가 협의해 추가적인 검토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다고 답변

(3.2.)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-정책리뷰 : 토의

- 동 보고서는 현존하는 국제 자료를 이용해 NTMs과 무역흐름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자료 분석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음.
- 사무국은 UNTAD의 TRAINS·UN의 COMTRADE·WTO의 SPS-SIC의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NTMs과 관련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밝힘
 - 다만, 우리나라의 경우 WTO에 290여건 통보하였으나 DB에는 나타나지 않는 등 TRAINS DB의 불완전성을 지적함
 - 사무국은 이들 세 DB을 통하여 사례연구 대상으로 치즈, 돼지고기, 채소, 새우,절화 등 6종의 사례를 선발하였음을 밝힘

□ 회원국 발언

- EC, 미국, 캐나다, 프랑스, 호주, 일본 등은 사례연구대상의 선택에 대하여 귀국후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특히 캐나다는 사례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

한 우려를 표명함

- EC, 미국,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된 TRAINS DB의 불완전성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의 동 DB의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의장은 동 보고서의 수정 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2-3가지 사례연구 결과를 차기 회의(09.5)에 제시할 것임을 설명하고, 추후 모델개발, 사례연구 등의 보고서를 제시할 것임을 설명함

④ 동물질병(구제역) 발생과 방역조치가 농산물시장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: 토의

- 동 보고서는 2007-2008년 작업 및 예산계획에서 가축질병이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 바 있으며, 대상질병을 구제역으로 한정하였음.
 - 구제역(FMD) 발생과 그에 따른 방역방법인 농산물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, 특히 3개국 사례(미국, 캐나다, 네덜란드)를 들어 4가지 방역조치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

□ 회원국 발언

- 영국, 뉴질랜드, 덴마크 등은 모델에 대한 가정(assumption)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
- 일본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
- 영국, 브라질은 대부분의 회원국(특히, 수입국)이 지역인정(regionalization)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OIE 규정의 실제 적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언급

□ 대표단 발언

- 동 보고서가 동물방역 조치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에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노고를 치하함
 - 2000년, 2002년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 시, 방역 조치로써 각각 백신접종과 살처분을 취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보다 적합한 방역조치를 선정함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언급
 - 캐나다 사례에서 지역화 조치의 편익이 과장되고 있고, 서로 다른 방역 조치간의 관련 비용을 언급함에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살처분 정책과 관련, 지역의 범위, 축종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했으나 실패했음을 해명
 - 질병의 특성이 결합되어 모델에 포함되면 도움이 되겠지만, 예산 부족으로 곤란하므로 input parameter를 다양화 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음
 - UK와 한국 등 구제역 방역 사례를 12월 첫 주까지 서면으로 제시해주면 최종보고서의 BOX로 삽입 가능할 것이며, 모델의 한계로 정책적 제안은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함

⑤ 농업교역에서 확장된 마진 : 토의

- 동 보고서는 “2005-2004 농식품 무역형태(COM/AGR/ID/WP(2006)58/REV1)”의 후속 연구이고, ‘2009-2010 예정된 ‘가공 식품 무역의 추세에 관한 연구’로 연계될 예정
 - 농업무역의 성장을 ‘집중성 영역(intensive margin)’과 ‘다양성 영역(extensive margin)’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함

□ 회원국 발언

- 뉴질랜드, 호주, EC 등은 보고서의 유용성을 치하하고 firm level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지 문의하고, 특정 상품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
- 일본은 B/C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HS6 Digit 자료로는 가공 상품 교역량을 알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, 향후 연구 시 교역비용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
- 영국은 학계 및 정책 도구로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보고서로 치하하며 해상운송 비용 연구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 문의
- 독일은 교역비용에서 관세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농산물 수출 확장에 바이오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

□ 대표단 발언

- 최근 농식품 수출 진흥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정책 입안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보고서이며 실제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

□ 논의결과

- 사무국은 firm level 관련 회원국의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우나, 특정 상품에 대한 사례는 추가토록 할 것임을 언급
 - 동 연구의 gravity 모델에서는 교역비용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우며, 해상운송 비용과 연계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
 - 새로운 연구 방법론 및 무역 패턴의 변화 등에 대한 향후 연구 계획은 금년 11월 회의에서 재논의 계획
 - 회원국들에게 서면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요청

※ DDA 협상경과 및 '09 ~'10 작업계획(PWB)

- 사무국은 현재까지 DDA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고하며, 2009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농식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임을 밝힘
 - DDA 협상 완료 시, 협상 결과가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

※ 회의 종료 시, OECD 농업무역 국장(Stephan Tangermann)의 퇴임사가 있었음